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and Happines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ploring Self-esteem and Sense of Community i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Yuh, Jongil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sense of community in the associ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and happiness, and the role of self-esteem in moderating those relationship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ethodology: Regression and moderated mediation analyses were applied to the data from a representative sample comprising middle school students (N=2,642; 47.4% girls) and high school students (N=3571; 47.9% girls) based on a nationwide study of the 'Research on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V' in Korea.

Findings: The results revealed that sense of commun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and happiness,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school level, geographic area, and socioeconomic status. Furthermore, results showed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s of self-esteem, showing the mediation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was stronger when adolescents reported lower levels of self-esteem.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greater attention to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in explaining adolescents' happiness,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ense of community in enhancing happiness. The results also suggest to consider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esteem utilizing differential effects for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Keywords: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Happiness, Sense of Community,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Yuh, Jongil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33, 144-gil, Samyang-ro, Dobong-gu, Seoul, 01369, Republic of Korea

ORCID: <http://orcid.org/0000-0001-7482-4182>

Email: jyuh2013@duksung.ac.kr

Received: February 28, 2022 Revised: March 28, 2022 Accepted: March 28, 2022 Publication: March 31, 2022

청소년활동만족도와 중·고등학생의 행복감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에 의한 공동체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여종일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목적: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V 자료에서 추출한 중학생 2,642명(남학생 1,391명, 여학생 1,251명)과 고등학생 3,571명(남학생 1,860명, 여학생 1,71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만족도는 공동체의식, 행복감, 자아존중감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 한 후에도 청소년활동만족도는 부분적으로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 한 후에도 청소년활동만족도로 향상된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났다.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청소년활동만족도가 차지하는 역할을 확인하였고, 중·고등학생의 행복감 증진과 관련하여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위해서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의식과 연관된 자아존중감의 변별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중·고등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입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청소년활동만족도, 행복감,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교신저자: 여종일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ORCID: <http://orcid.org/0000-0001-7482-4182>

Email: jyuh2013@duksung.ac.kr

투고일: 2022. 2. 28.

심사일: 2022. 3. 28.

게재확정일: 2022. 3. 28.

발행일: 2022. 3. 31.

I. 서론

행복은 인간이 가장 바라는 상태로써 대다수의 개인들에게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간주된다. 행복의 기준은 개인이나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될 수 있으나, 행복에 대한 관심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5년 UN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기초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1]. 그러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개인들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행복감이 낮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특히 국내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며, 9세에서 11세 연령집단의 행복감 평균은 10점 만점 대비 6.8점, 12세에서 17세 연령집단의 행복감 평균은 6.45점이었다[2].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의 지표 중에서 자신의 요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 대비 6.59점으로 2017년에 조사된 6.75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세에서 12세 연령집단의 평균이 6.99점, 13세에서 18세 연령집단의 평균이 6.67점, 19세에서 24세 연령집단의 평균은 6.35점으로 나타났다[3]. 이렇듯 국내 청소년이 체감하는 행복감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행복감은 성인기에 인식하는 행복감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4], 실증자료를 통하여 국내 청소년의 행복감과 연관된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여러 요인 중에서 청소년의 활동은 행복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청소년기는 학교와 지역사회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역량을 개발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전반적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관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활동의 참여여부보다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5]. 2009년 실시한 청소년활동 욕구 및 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만족도는 중·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켰고[6], 2018년 실시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청소년활동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7, 8].

최근에는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매개변인을 파악하거나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모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변인 중에서 공동체의식은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에 작용하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동체의식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개념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동체의식은 구성원 간의 소속감, 구성원들이 서로에게나 집단에게 중요하다는 감정, 함께 하려는 헌신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욕

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신념을 의미한다[9]. 공동체의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지만, 특히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청소년기에는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역량이다[10]. 그러나 국내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은 토대가 미약한 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공동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교육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1].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조직화된 집합활동의 규범과 일상에 접하게 되고 사회적 기술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아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체험활동 만족도[12]와 사회참여활동[13]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개인으로 하여금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게 하는 심리적 기제인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으로써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써[14], 개인의 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행복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개인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15]. 청소년기는 생활영역이 확대되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재조명하는 시기이므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상태를 지니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며, 사회성이 부족하여 대인관계 문제와 부적응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16].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활동만족이나 활동참여는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17, 18].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 작용하는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활동만족도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모형을 분석하거나[8], 청소년활동이나 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이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에 연관된다는 연구는 있으나[17,18,19], 공동체의식과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조절효과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매개변인은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간의 연관성을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매개변인을 통하여 외부의 물리적 사건들이 심리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조절변인은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변인으로 상호작용으로 검증되는 조절변인을 통하여 언제 특정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근래에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조절된 매개모형은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집합적 개념인 공동체의식과 개인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조절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개인적 및 집합적 요인이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기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활용이 가능한 변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연구문제 3. 공동체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활동만족도와 행복

행복은 최적의 경험 및 기능과 관련된 다측면적인 구조를 지니며,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등과 같은 용어들과 호혜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20]. 행복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쾌락주의적 접근에서는 행복을 쾌락 추구 및 고통 부재와 상응하는 개념으로 보며, 높은 긍정적 정서, 낮은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의 증대를 강조하는 한편, 자기실현적 접근에서는 행복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기능과 잠재력의 발현을 강조한다[21, 22].

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행복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23], 제3조 제3호에서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영역이나 분류에 대해서도 일관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스스로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자율적 활동으로 청소년 육성의 수단적 의미를 지닌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공동체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자기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비교과활동으로의 특징을 지닌다[24]. 기존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영역의 활동에 국한되거나 활동의 참여여부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므로 활동참여 자체 보다는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즉,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질적인 접근은 참여경험의 유무와 같은 양적인 접근보다 실질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7]. 선행연구들은 청소년활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높게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9년 실시한 청소년활동 욕구 및 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만족도는 중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켰다[6].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자료를 통하여, 청소년활동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과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7],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청소년의 활동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공동체의식은 지역적 특성으로 국한되지 않고, 관계성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13]. 공동체의식은 성장과정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습득되고 학습되므로, 개인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활동을 통하여 협업과 상호지원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종단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험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보였다[12]. 또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은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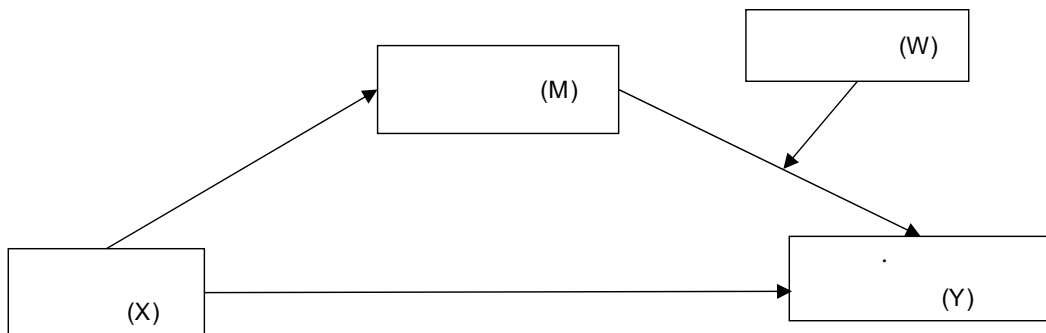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데,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고 사회적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이므로 공동체의식이 주요한 발달과제로 대두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가족 외의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주요한 시기이다[13]. 경험적 연구들은 공동체의식과 행복감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데,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유형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동체의식은 동아리 참여활동유형과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자원봉사 참여활동유형과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종단적 자료에서 공동체의식은 사회적 관계성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과관계를 나타내었다[25].

3. 공동체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게 갖는 전반적 판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26].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와 성인 중기에 증가하고 노년기에 접어들며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13].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주요한 적응지표로써, 높은 자아존중감은 원만한 적응과 연관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과 연관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청소년의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27]. 김정민과 송수지의 연구[5]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의 자료를 구조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활동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후, 고등학생 시기의 청소년활동 경험은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16].

집합적 개념인 공동체의식과 개인적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종단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쳤고, 이전 시점의 공동체의식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28].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중학생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도 증가하였으며, 공동체의식은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9],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쳤다[30].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유능감,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공동체의식이 증가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공동체의식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31]. 공동체의식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고려할 때, 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학교급, 거주 지역규모, 사회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변인들을 통제한 후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한 후 예측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V [32] 자료에서 추출한 중학생 2,642명(남학생 1,391명, 여학생 1,251명)과 고등학생 3,571명(남학생 1,860명, 여학생 1,71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의 모집단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9,041명을 최종적으로 추출한 후, 학교를 통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조사이다. 전체 조사대상인 9,041명의 청소년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51.9%, 여자 청소년이 48.1%이었으며,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이 31.3%, 중학생이 29.2%, 고등학생이 39.5%이었으며, 거주 지역규모의 경우 대도시가 40.9%, 중소도시 48.2%, 읍면지역이 10.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총 6,213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변인들과 관련된 문항에서 모름이나 무응답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의 자료에서 연구변인들을 선정하였다. 청소년활동만족도는 예측변인, 행복감은 준거변인, 공동체 의식은 매개변인, 자아존중감은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 청소년활동만족도

지난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의 연구[33]에서 사용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청소년활동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 활동내용의 흥미와 유익함에 대한 평가, 지도자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시설·공간·장비에 대한 만족도, 일정과 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활동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문항의 예로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포함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청소년활동만족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는 .943으로 나타났다.

나. 공동체의식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에서 사용된 4문항을 활용하였다[34].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문항의 예로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가 포함된다. 실태조사 전체 청소년의 경우, 공동체의식의 신뢰도계수(Cronbach’s)는 .808이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의 신뢰도계수(Cronbach’s)는 .812로 나타났다.

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10문항을 활용하였다[35]. 원척도의 4점척도는 실태조사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수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문항의 예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포함된다. 실태조사 전체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신뢰도계수(Cronbach’s)는 .858이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신뢰도계수(Cronbach’s)는 .867로 나타났다.

라. 행복감

청소년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의 조사에서 사용된 6문항을 활용하였다[36].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문항의 예로 ‘나는 아무런 이유없이 외롭다(역문항)’가 포함된다. 실태조사 전체 청소년의 경우, 행복감의 신뢰도계수(Cronbach’s)는 .814이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행복감의 신뢰도계수(Cronbach’s)는 .836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AS 9.4 통계프로그램과 프로세스 매크로 (SAS Process Macro) 모형[37]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본 분석 이전에 연구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고, 분포의 정상성을 살펴보았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인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통제변인들을 투입한 후, 예측변인들의 설명력과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프로세스 매크로 모형을 통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는 공동체의식이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분석을 수행하는데 적용되었다. 셋째, 연구문제 3인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프로세스 매크로 모형을 통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14는 자아존중감이 공동체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데 적용되었다.

IV. 분석결과

1. 청소년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본 분석에 앞서, 기초통계자료로써 청소년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V-1>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활동만족도 변인의 평균은 3.307점, 표준편차는 .886점, 공동체의식의 평균은 3.531점, 표준편차는 .825점, 행복감의 평균은 3.792점, 표준편차는 .782점,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565점, 표준편차는 .730점으로 나타났다.

<표 IV-1> 측정변인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치

변인	1	2	3	4
1. 청소년활동만족도	1			
2. 공동체의식	.333 ^{***}	1		
3. 행복감	.298 ^{***}	.450 ^{***}	1	
4. 자아존중감	.216 ^{***}	.329 ^{***}	.695 ^{***}	1
평균	3.307	3.531	3.792	3.565
표준편차	.886	.825	.782	.730
왜도	-.464	-.247	-.300	-.135
첨도	.730	.274	-.320	-.401

*** $p < .001$

청소년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만족도는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333, p<.001$; $r=.298, p<.001$; $r=.216, p<.001$). 공동체의식은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r=.450, p<.001$; $r=.329, p<.001$), 자아존중감과 행복감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r=.695, p<.001$).

2.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를 보고하여 남학생이거나 중학생이거나 대도시 거주인 경우는 여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거나 읍면이나 중소도시인 경우보다 행복감을 높게 보고하였다[7]. 또한, 행복감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37].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별(1=여학생), 학교급(1=중학교), 거주 지역규모(대도시=1)를 더미변인으로 투입하고, 매우 낮은 수준의 1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7점까지의 척도로 평정된 사회경제적 수준을 투입하였다. 통제변인을 고려한 후, 청소년활동만족도를 예측변인으로, 행복감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이전에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를 산출한 결과, 2미만의 범위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매개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 검증에서 통제변인을 고려한 후 예측변인인 청소년활동만족도가 매개변인인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활동만족도($\beta=.298, p<.001$)는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검증에서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활동만족도($\beta=.249, p<.001$)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검증에서 청소년활

<표 IV-2> 단순매개효과 검증결과

총효과와 직접효과	β	S.E.	t	p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총효과	.249	.011	23.573	.000
청소년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298	.011	26.746	.000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355	.011	31.147	.000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143	.010	13.810	.000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Effect	Boot S.E.	LL 95% CI	UL 95% CI	
.106	.006	.094	.118	

동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활동만족도의 영향력과 유의도 수준은 감소하였고($\beta=.143, p<.001$), 공동체의식($\beta=.355, p<.001$)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에 기초하여 재추출 표본 수를 5000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effect=.106, S.E.=.006, 하한값=.094, 상한값=.118). 따라서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14를 활용한 결과는 <표 IV-3>에 제시되었다. 성별, 학교급, 거주 지역규모,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이후,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05, p<.001$),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beta=.625, p<.001$). 행복감에 미치는 공동체의식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해서($\beta=-.044, p<.001$), 행복감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효과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표 IV-3>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준거변인					
	M(공동체의식)			Y(행복감)		
	β	S.E.	t	β	S.E.	t
통제변인						
성별	.138	.020	6.992***	-.086	.014	-6.286***
학교급	-.115	.020	-5.734***	.072	.014	5.201***
지역규모	.037	.020	1.867	.017	.014	1.222
사회경제적 지위	.108	.009	12.609***	.038	.006	6.200***
예측변인(X: 청소년활동만족도)	.298	.011	26.746***	.082	.008	10.065***
매개변인(M: 공동체의식)				.205	.009	22.198***
조절변인(W: 자아존중감)				.625	.010	61.612***
상호작용항(M X W)				-.044	.010	-4.191***
	$R^2=.143$			$R^2=.556$		
	F(5, 5944)=198.86***			F(8, 5941)=928.17***		

*** $p<.001$

〈표 IV-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결과

매개변인	조절변인(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수준	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공동체의식	W-1SD	낮음	.071	.006	.060	.082
	W	중간	.061	.004	.053	.070
	W+1SD	높음	.052	.004	.043	.061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자아존중감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구간이 낮을수록 청소년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 연관된 변인을 파악하고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같은 집합적 개념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내적 변인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에 의한 공동체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 회귀분석,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고,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정적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만족도가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도 정적상관을 보였던 선행연구[5]의 결과에 일치하며, 청소년활동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6,17,27]의 결과에 부합된다. 청소년활동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의 정적상관은 체험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이 상호의존적임을 밝혔던 선행연구[12] 결과에 부합된다. 특정 영역의 활동이나 참여정도에 대한 양적 접근과 더불어 전반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행복감 증진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5],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의 양적 측면 뿐 아니라 활동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켜 청소년이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으며, 대면과 비대면 유형의 활동이 가능한 혼합형 활동 여건과 디지털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 [39, 40].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활동계약과 감염우려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을 감소시켰다[41].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과 비대면 유형의 다양한 활동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야외활동과 자연놀이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주관적 안녕감의 감소폭이 작게 나타났고[42], 비디오와 워크숍을 활용한 스포츠와 놀이 기반의 가상활동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생활기술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이었다[43]. 코로나19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와 활동참여 기회의 감소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기관 간 협력, 실질적 지원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청소년활동만족도는 부분적으로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활동만족도는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배우며 사회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 성장과 행복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의식이 동아리 참여활동유형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자원봉사 참여활동유형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는 선행연구[18] 결과에 부분적으로 부합된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며, 사회구성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기여한다는 느낌은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청소년활동을 통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주요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을 담당하며 소속감을 부여하므로, 청소년의 행복이나 적응에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데 청소년의 활동만족은 개인적 자아정체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공동체적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행복감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활동만족도로 향상된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감과 높은 자살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아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활동을 제공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은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인과성을 규명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방법을 통하여 변인들의 변화방향을 파악하거나, 질적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청소년들의 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주관적 행복감의 의미를 고찰하는 질적접근은 청소년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관을 통한 대규모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생태학적 맥락에서 관련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전을 살펴보았다. 특히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 사회적 환경에 대한 평가인 공동체의식과 개인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이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변인이며, 자아존중감은 청소년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을 설명하는 핵심요인이지만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면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청소년으로 하여금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청소년활동만족도가 차지하는 역할을 확인하였고, 중·고등학생의 행복증진과 관련하여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위해서는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의식과 연관된 자아존중감의 변별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중·고등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설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1. 환경부 (2018).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Ministry of Environment (2018). A Report on Korea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K-SDGs)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발간등록보고 11-135-2000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No. 11-135-20000)
3.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발간등록보고 11-1383000-000253-1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0). No. 11-1383000-000253-12)
4. Avedissian, T., & Alayan, N. (2021). Adolescent well being: a concep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30(2), 357-367.
5. 김정민, 송수지 (2017). 청소년활동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359-373. (Kim JM, Song, SJ (2017). The Influence of Youth Activity Satisfaction on Subjective Happines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0), 359-373)
6. 도중수 (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Do JS (2011). The Effects of Youth Voluntary Service on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4), 21-45)
7. 박동진, 김송미 (2021). 청소년활동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성취 기대수준과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7(2), 103-125. (Park DJ, Kim SM (2021). Th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on Subjective Happines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xpected Level of Achievement for Youth Activities and Level of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7(2), 103-125)
8. 손한결 (2021).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활동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연구*, 11(4), 153-173. (Sohn HG (2021).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Su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s: Focusing on Satisfaction of Youth Activities, Participation of Youth Activities, Self-esteem, and Sense of Community.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11(4), 153-173)
9.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10. 구지윤, 김유나 (2016).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87-309. (Ku JY, Kim YN (2016). The Effect of Youth Activities and School

- Adjustment on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8), 287-309)
11.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Kang GY, Jang YM (2013). A Study on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1), 97-123)
 12. 신인순, 전동일 (2017). 청소년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간의 인과관계. *사회과학연구*, 33(4), 121-140. (Shin IS, Chun DI (2017). Causality Between Youth Experience Activities and Sense of Community.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3(4), 121-140)
 13. 한은영, 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3, 95-124. (Han EY, Kim MK (2013). Relationship Among Sense of Community,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Perception of Neighborhood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3, 95-124)
 14. Orth, U., & Robins, R. W. (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 381-387.
 15. Lopez, S. J., & Snyder, C. R. (2003/2008). 긍정심리평가: 모델과 측정. 이희경, 이영호, 조성호, 남종호 (역). 서울: 학지사. (Lopez, S. J., & Snyder, C. R. (2003/2008).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Seoul: Hakjisa)
 16. 이미리, 김춘경, 여종일 (2019). 청소년심리 및 상담. 서울: 학지사. (Lee ML, Kim CK, Yuh JI (2019).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Seoul: Hakjisa).
 17. 이시연 (2019). 고등학교 시기 청소년활동이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전증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117-134. (Lee SY (2019).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Youth Activities During High School Years on Subjective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ctivity*, 5(3), 117-134)
 18. 함승우 (2016).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0(12), 95-108. (Ham SW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on Participation of Youth Activity and Self-esteem on Their Resilience and Happ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0(12), 95-108)
 19. 김경미 (2020). 참여하는 청소년은 행복한가?: 사회참여 활동유형과 성별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6(1), 141-164. (Kim KM (2020). Are Korean Adolescents who Participate Happy?: Social Participation Types and Mediated Effect of Community Sense in Gender Groups. *Journal of Social Science*, 46(1), 141-164)
 20. Fave, A. D., ...Soosai-Nathan, L. (2016). Lay definitions of happiness across nations: The primacy of inner harmony and relational connectedness. *Frontiers in Psychology*, 7(30).

21. Chalofsky, N. & Cavallaro, E. (2019). To have lived well: well-being and meaningful work. In R. Yeoman, C. Bailey, A. Madden, & M. Thomps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meaningful work* (pp. 100-116).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2. Huta, V. (2013). Eudaimonia. In S. A. David, I. Boniwell, & A. C. Ay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happiness* (pp. 201-214).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3.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 17285호 (2020). (Framework Act on Youth, Act No. 17285, 2020)
24. 김영서, 홍세희 (2021).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공동체의식 및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조사연구*, 22(1), 91-125. (Kim YS, Hong SH (2021).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Youth Activities and Examining Differences in Sense of Community and Happi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Survey Research*, 22(1), 91-125)
25. 박수원, 김셋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Park, SW, Kim SB (2016). Reciprocal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7(2), 5-32)
26.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87-116). New York, NY: Plenum Press.
27. 류시영, 강방훈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아시아태평양잼버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Ryu SY, Kang BH (2012).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Happiness. *Studies on Korean Youth*, 23(4), 27-50)
28. 최정현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종단적 융합연구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9(12), 62-70. (Choi JH (2019). A Converged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ommunity Spirit i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Data of KCYP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2), 62-70)
29. 홍봉선 (201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4(7), 83-110. (Hong, BS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Teenagers Self-resp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Sen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7), 83-110)
30.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Park JS (2010).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Adolescents' Training Activity, Voluntary Service, Self-esteem and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4), 157-182)

31. 정수빈, 김지태 (2016). 청소년의 신체적 유능감,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 모형. 한국웰니스학회지, 11(3), 327-343. (Jung SB, Kim JT (2016).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Among Physical Competence, Self-esteem,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1(3), 327-343)
3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발간등록보고 18-R07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A Study on Youth Activity Survey V. No. 18-R07).
33.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2009년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및 효과성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Moon SH, Moon HY, Kim YD (2009).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Youth Activity Program.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5차 조사 코드북: 제5회 학술대회용.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에서 2016년 3월 14일 인출.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5).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35.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36.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Korea Bang Jeong-hwan Foundation,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Yonsei University (2010). Korean Children and Youth Well-being Index Survey 2010. Seoul: Korea Bang Jeong-hwan Foundation)
37.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The Guilford Press.
38. Quon, E. C., & McGrath, J. J. (2014).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adolescent health: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33(5), 433-447.
39. 고희재, 김용진, 권일남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방향과 과제 탐색.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21-41. (Ko PJ, Kim YJ, Kwon IN (2020). A Study on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Youth Activities in the COVID-19. Journal of Youth Activity, 6(4), 21-41)
40. 박선영 (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173-194. (Park SY (2020). Challenges of Youth Work and Youth Policy in the Post COVID-19 era. Journal of Youth Activity, 6(4), 173-194)
41. Von Soest, T., Bakken, A., Pedersen, W., & Sletten, M. A. (2020).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idsskrift for Den norske legeförening,

140(10).

42. Jackson, S. B., Stevenson, K. T., Larson, L. R., Peterson, M. N., & Seekamp, E. (2021). Outdoor activity participation improves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5), 2506.
43. Bates, S., Greene, D., & O'Quinn, L. (2021). Virtual sport-based positive youth develop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8(4), 437-448.